

해외시장 집중공략, 2년뒤 100억 매출

전동운반차 전문생산업체인 근우테크(주)가 지난해 공장을 확장 이전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수출 확대에 나서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근우테크는 지난해 일본·동남아·중국 등에 이동식 엔진 소방펌프 전동차를 50만 달러 이상 수출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일본과 호주의 파프리카·토마토 농장에 리프트형 전동운반차를 공급하기로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2월부터 본격 선적을 한다. 또한 유럽시장에도 전동운반차 수출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수출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근우테크는 지난해 생산라인 확대와 자동화 공정 마련을 위해 25억원을 투입해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에 대지 500평, 연면적 630평의 공장자동화 시설을 마련하고 로봇자동용접, MCT 자동밀링 등의 최신 설비를 갖춰 생산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근우테크는 국내 농용 전동운반차 시장의 60%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시장점유율 1위의 대표적인 리딩컴퍼니로 이처럼 고속성장을 통해 수출확대에 나설수 있는 원동력은 타사에서 모방할 수 없는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現 근우테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박춘숙 대표와 기술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전연호 이사는 부부사이로, 서로 역할분담을 통해 경영을 분업화해 운영하고 있다.

근우테크의 태동은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자동차 엔지니어링을 가르치고 있던 전연호 이사가 향후 친환경 농업의 확대추세에 따라 오염원이 없는 전동운반차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해 2007년 근우테크를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

경영과 영업은 박 대표가 전담하고 전 이사는 기술개발에만 매달려 2008년 전동운반차의 핵심기술인 소형 프론티어 디스플레이션 기어와 수직형의 차동장치를 독자기술로 특허개발하면

서 국내에 독보적인 전동운반차 기업으로 발돋움 하게 되었다.

근우테크의 원천기술에 대해 전 이사는 “농용전동운반차의 핵심기술은 배터리와 모터, 차동장치로 구분된다”고 말하고 “일반화 되어있는 배터리·모터와 달리 차동장치는 일반 승용차용 부품을 차용하기 때문에 폭이 좁은 농로에 적용할 수 있는 전용 차동장치를 개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전 이사의 설명에 따르면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차동장치는 차체가 낮은 승용차용의 수평형으로, 바퀴와 바퀴사이에 장착해야 하기 때문에 바퀴폭을 20cm로 줄이기 위해서는 수직형의 차동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 이사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수직형의 차동장치를 개발해 폭이 좁은 농업용, 산업용의 차동장치를 개발해 차체의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근우테크의 기술력은 오히려 자동차 강국인 일본에서 더 인정을 받아 지난해 전자클러치를 이용한 이동식 엔진 소방펌프 운반차를 대량으로 수출하게 되었으며, 소방차에서 골목길 화재현장 또는 차량진입이 어려운 현장에 폭이 좁은 전동운반차로 개량해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박 대표는 “농용 전동운반차와는 별개로 산업용 전동운반차

공급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현대자동차, 포항제철, 대림, 원자력발전소 등에 이미 납품계약을 체결해 몇 년전부터 수량을 늘려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근우테크는 이러한 공급다변화와 수출확대를 통해 연간 50억원대의 매출을 2016년에는 100억원대로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직원 3명으로 시작해 6년만에 32명의 견실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근우테크의 장밋빛 미래를 바라보며 원천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053)801-7897

정상진 기자 kerryj@kamnews.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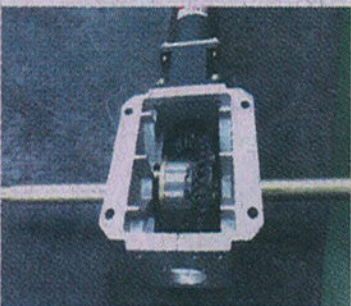


근우테크(주)를 이끌어 가고 있는 박춘숙 대표와 전연호 기술이사 부부

**차동장치등 원천기술로 전동운반차 개발, 60% 시장점유
첨단설비로 생산시설 재무장...올부터 일본·호주 본격수출**



현대식 자동화 공정라인을 갖춘 근우테크 공장내부



바퀴폭을 자유롭게 줄일 수 있도록 개발된 수직형 차동장치



핸들의 스티어링을 제어해 주는 프론티어 디스플레이션 기어



제품의 품질균일화와 자동화를 위한 자동용접로봇 설비



대량생산을 위한 MCT 자동밀링 설비